

● 研 究

「嶺南樂育齋」는 官立圖書館의 嚆矢

張 仁 鎭
계명대도서관사서

樂育齋는 景宗원년(1721년) 당시 경상감사 趙泰億이 「崇儒之道 養士之法」이라는 이념에서 인재양성과 文風振興을 목적으로 그 당시 大邱府南門밖(현재 大邱市南山동 東山양말공업사 일대)에 설립하였는데 이곳에는 경상도내의 유능한 선비들을 선발하여 기숙시켜가며 독서 및 학문연구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설립시기로 보아서 嶺南지방에서 전근대적인 官立圖書館의 효시라 하겠다.

樂育齋는 그후 英祖 8년(1732)에 趙顯命감사가 중수한 바 있고 純祖 7년(1807)에는 尹光顔감사가 齋內에 書庫인 藏書閣을 創造하였으며 다시 高宗朝 嚴世永감사는 1897년에 齋를 중수하는 등 많은 발전을 보아왔다. 한편 樂育齋의 齋生선발은 설립초기이래 정월 15명으로 本道內 거주하는 유능한 선비를 감사가 널리 선발하였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11월경이었고 시험과목은 時와 賦를 과하였던 것이다. 선발된 儒生은 다음해 정월에 居齋即 기숙시켜 독서와 학문연구를 담당케 하여 科擧에 응시케 하였는데 이들에게는 주·부식 紙·筆·墨 등을 監營에서 관급하였던 것이다.

齋生들의 居齋기간은 대체로 1년의 범위내였으나 때로는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朝鮮후기 樂育齋에 선발, 居齋했던 자의 명단을 기록한 「樂育齋 齋錄」이 최근 大邱市立도서관에서 발견되어 이를 살펴보면 전체인원이 2백44명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들 선발된 자 가운데는 학문이 뛰어나던 여러 차례 선발되기도 하여 1인이 3회나 선발된 예도 있었다. 또한 선발된 자의 연령도 15~69세까지로 광범하나 21~40세가 139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선발된 자를 居住지역별로 살펴보면 大邱 77명, 漆谷 12명, 淸道 9명, 河陽 8명 순이며 멀리 東萊·機張·金海·鎭海·蔚山·居昌 등지에서도 참가하였는데 그 지역수가 무려 51개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지리적 여건도 좋지 못한 시대란 것을 감안할 때 樂育齋의 학문연구 및 독서시설이 빼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다. 齋生들의 과업은 詩·賦의 製述을 주로 다루었으며 다음으로는 表·策과 經學의 양송등을 들수 있는데 齋生상호간의 학문토론과 독서가 일과 중에 매우 활발하였던 것이다.

한편 樂育齋에는 庭집 禮라는 儀式행사가 있어 文風진흥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이 행사에는 禮儀와 질서를 엄숙히 다루었는데 慶尙監司는 이때 師席이 되며 師席과 齋生間에 講目問答으로 성적을 평가하여 열등한 자와 失禮를 범한 자에게는 많은 벌칙이 따랐는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1898年 嚴世永監司 재임시에 행한 庭집禮를 들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의 문헌이 현재 大邱市立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樂育齋 철폐에 대해 살펴보면 1894年 甲午更張으로 地方制度가 개편되자 樂育齋 재산을 大邱와 晉州로 양분하였으며, 이 중 大邱에서는 증건의 樂育齋 과정을 존속케 하였는데 이어 嚴世永監司의 부임으로 樂育齋 重修와 함께 정원을 크게 늘려 선발했으므로 기능과 시설이 발전적으로 존속하였다.

그러나 1905년 乙巳條約으로 인한 日帝統監府 설치 후에는 朝鮮人 모든 학교운영을 크게 방해해오에 따라 1906年 樂育齋를 철폐시키고 그 재산으로 協成學校를 설립했다고 「大邱鄉校誌」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樂育齋에 소장되었던 圖書는 缺집이 많으나 764册이 현재 大邱市立圖書館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1732年 英祖로부터 하사받은 「心經」과 「近思錄」 그리고 1808년 純祖로부터 하사받은 「大學類義」등 귀중한 圖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朝鮮後期 高宗朝 樂育齋에 居齋했던 자들은 시기적으로 봐서 日帝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던 때인지라 社會 진로면에서 크게 두드러지진 못하나 文苑이나 儒行있는 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자기수양 및 후진양성에 이바지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樂育齋가 書院이나 鄉校와 다른 점을 들자면 설치목적에 있어서는 人材養成, 文風振興 또는 鄉校의 地方民敎化등으로 서로 비슷하다고 보겠으나 기능면에서 書院은 士豫藏修·講學·祀賢의 기능으로 祀묘가 있고 鄉校는 儒學中心의 學課로서 주로 地方民風 순화에 소課되는 과목과 文묘 祭享機能을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樂育齋는 讀書·詩·賦의 製述·研學등의 기능을 가졌으나 文묘나 祠묘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樂育齋는 中央의 讀書堂(湖堂)의 축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